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6월 19일 (토) 제 183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소득증가, 위험 감수...정치적 변화 온다!

이코노미스트, 역사가 말해주는 포스트팬데믹 경제호황의 득과 실 소개

1830년대 초 콜레라 대유행은 프랑스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 달 만에 파리 전체 인구 중 3%의 목숨을 앗아갔고, 병원은 미지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콜레라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경기회복이 가팔라졌고 프랑스는 영국을 이어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된 것처럼 팬데믹이 정치적 혁명을 불러왔다. 전염병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빈곤층은 질병을 피해 시골집으로 도망친 부자들에게 대한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맹렬히 공격했다. 프랑스는 몇 년간 정치적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가난한 나라들을 휩쓰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포스트 팬데믹 호황에 접어들었다. 선진국의 백신 보급이 확산하면서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는 속속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이 6%를 넘어서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4% 이상 급등한 추세다. 다른 선진국도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G7국가의 1820년 이후 GDP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동반 성장은 약 200년 동안 매우 드물었다. 1950년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호황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역사가 말해주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 호황의 교훈을 제시해준다(What history tells you about post-pandemic booms: People spend more, take more risks—and demand more of politicians).



포스트 팬데믹으로 오는 경제호황은 득과 실의 양면을 갖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뉴욕 맨해튼 거리

이번 상황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역사를 뒤지고 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엄청난 비경제적 충격 뒤 GDP는 다시 회복했다. GDP 회복 외에도 3가지 경향을 알 수 있다.

첫째, 외출과 소비 욕구가 크게 확산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둘째, 위기를 겪으며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경제 구조가 크게 변경된다. 셋째, "레미제라블"의 사례와 유사하게 정치적 격변이 뒤따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소비와 저축

첫 번째로 소비의 증가를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지난해 목격한 팬데믹 초기 상황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난다. 소비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저축이 빠르게 늘어났다. 1870년 상반기 천연두가 퍼지면서 영국의 가계 저축률

은 2배로 뛰어올랐다. 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저축률도 2배 이상 증가했다. 1919년-1920년 스페인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미국인들의 현금 보유 성향이 이례적으로 늘었고, 이러한 추세는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 전쟁이 발발하자 저축이 다시 증가했고,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가계 저축 규모는 전체 GDP의 40%에 달했다.

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의 변화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회복된다. 그러

나 소비와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증가한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역사학이 끝나고 사람들이 "야생적인 쾌락(Wild fornication)"과 "히스테리향락(hysterical gaiety)"을 즐겼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스페인 독감에 대한 공포가 종식되고 처음 맞은 1920년 새해의 풍경을 떠들썩한 축제와 거리가 멀었다. 물론 한 연구에서 "브로드웨이와 타임스퀘어가 대유행 이전과 비슷했다"고 표현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병들고 지친 나라"로 여겨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연구에서 1946년-1949년 미국 소비자들이 초과 저축의 약 20%만을 소비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가 소비지출이 전후 경기회복에 일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월간 기업상황보고서(business situation report)는 임박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48-1949년 불경기에 접어들었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대표하는 소비품목인 맥주에 대한 지출도 감소했다. 소비과열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포스트 팬데믹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경제의 공급 측면

포스트 팬데믹 경제호황의 역사에서 얻은 두 번째 교훈은 경제의 공급 측면, 다시 말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탕핑'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 시나 웨이보에서 수많은 밈을 탄생시켰다.

'더 격렬하게 누워있고 싶다!'

BBC, 중국 젊은 세대 트렌드 '탕핑' 중국 젊은층의 침으로 분석

근면 성실을 중시하고 보상은 거의 없는 듯한 노동문화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이 "평평하게 누워있기"로 생활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탕핑(躺平)'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트렌드는 장시간 교대근무, 취직, 좋은 업무성과 등 사회적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해독제로 풀이된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위축되는 중국 젊은이들은 종종 더 긴 시간 동안 일한다. 사람들은 "탕핑"이라는 용어가 중국의 인기 소셜 미디어 사이트 게시글에서 유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토론장인 티에바에 "평평하게 눕는 것은 나의 현명한 동작"이라며 "인간은 누워야만 만물의 척도가 된다"고 적었는데 이 글은 나중에 삭제됐다. 이 글귀는 추후 또 다른 중국의 인기 마이크로블로그(글자 수 제한이 있는 블로그) 사이트 시나 웨이보에서 회자됐고, '탕핑'은 유행어가 됐다(China's new 'tang ping' trend aims to highlight pressures of work culture).

과로하지 않고, 좀 더 얻기 쉬운 성과에 만족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을 허용하는 "탕핑"에 숨은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을 수 많은 밈(meme·재미난 말)을 적어 다시 포스트 팬데믹 사정이나 영감을 주는 영감이 됐다. "탕핑"은 영적 운동으로 풀이돼왔다.

왕씨 성으로 알려진 한 실험실 기술자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드넓은 바

다에서 바늘을 건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4세의 그는 "사회로부터 얻어맞고 나서 좀 더 긴장을 푸는 삶을 원할 뿐이다... '평평하게 눕기'는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이준성 목사



팬데믹 시대 엄마와 자녀... 설문 결과 보도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불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2021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1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광범위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2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3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2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0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0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4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5 본인 재학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1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1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주요남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
2	김득열 목사 & 김복신사님기림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 & The Kwonsa Bo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
3	이민근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Min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4	왕수복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Soobok Wa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5	홍길두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6	신봉성 권사 기림 장학생 1명 The Kwonsa Bongsu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7	클리블랜드중앙교회 장학생 1명 Cleveland Joongang K. P. 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8	손철수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9	김광열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0	New Life 랜싱 한인장로교회 New Life Lansing K. P. 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1	이범열 집사기림 장학생 1명 The Deacon Bumyeo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The Rev. Myungja Yoo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3	김득열 목사 특별 장학금 The Rev. Tukyu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Tel. 734-981-5549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1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1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박태수 장로 서기: 김중대 장로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천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 칼럼

아버님의 유산(遺産)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게는 아버님의 유산이 둘이 있다. 하나는 무형(無形)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有形)의 유산이다. 무형의 유산은 아버님의 유언(遺言)이셨는데 바로 이것이다. "복음전파! 복음전파! 복음전파!"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 마디를 외치셨다. 그때는 내가 목사가 된 지 2년이 된 해인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외치신 것이다. 이 유언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유언이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일깨워주신 것이며 복음의 단순함과 광대함을 동시에 일러주신 말씀이셨다. 복음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다.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생활하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것 같으나 그 안에 잠겨 있는 다양한 기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그 스마트폰의 다양함도 복음에 다양함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전파"는 내가 직접 들은 유언이지만 훗날 나의 두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들도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조카 중에도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다. "복음전파! 복음전파! 복음전파!"는 이제 우리 가정의 가훈(家訓)이 되었다.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유형의 유산도 있다. 건물? 아니다. 은행 통장? 그것도 아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형의 유물은 몇 권의 낡은 노트이다. 내게 유산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나 아버님이 떠나신 자리에 남아 있던 낡은 노트를 내가 유형의 유산으로 삼은 것이다. 내 책장 속에 지금까지 꽂혀 있는 아버님의 낡은 노트를 간혹 펼쳐 볼 때면 아버님의 체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아버님의 낡은 노트에는 아버님이 예배 때 여러 목사님의 설교들을 요약하시면서 받아 적으신 내용이 있다. 설교 날짜, 설교자,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 노트 위에 가지런히 적혀있고 각 설교는 대학노트 한 페이지 분량으로 한글과 한자(漢字)를 섞어 그날의 설교를 요약해 놓으셨다.

설교 노트와 아버님의 견해나 생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셨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설교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인생(人生)과 영원(永遠), 복음(福音)의 유익(有益), 하나님의 주권(主權), 헌신(獻身)의 출발, 은혜(恩惠) 신앙(信仰), 노후 대책(對策), 기도(祈禱)를 배우자, 다양성(多樣性)의 조화(調和), 죽도록 충성(忠誠)하라 등등이었다. 아버님의 노트는 그날의 설교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아버님의 설교에 대한 자세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엿보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노트는 아버님이 나에게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청중(聽從)하라고 교훈하는 듯하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다. 사람의 선택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면에서 아버님의 선택은 탁월하셨다. 자녀들을 위한 유산의 선택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돈을 많이 남겨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큰 빌딩을 하나라도 남겨주셨다면 우리 1남5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사를 바치려는 선택을 통해 자신도 살고 이삭도 살고 그 후손이 지대한 복을 받았다. 내일은 아버지날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복음 전파"와 "낡은 노트"라는 아버님의 유산이 감사한데 나는 어떤 유산을 남겨줄 아버지가 될 것인가.

만물에 대한 돌봄은 신앙인의 영성!

Plantwithpurpose.org, 필리페 라자로가 말하는 '환경에서 희망 건지기'

환경에 대한 설교는 미국 교회에서 흔치 않다. 기업들은 더욱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에 점점 더 몰두하고 있고, 젊은 세대 구성원들은 '기후불안'의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교회의 접근방식이 회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교회가 환경 관련 담론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수히 많으며, 그 이유들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미국에서 환경담론은 종종 정치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일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환경이라는 주제가 교회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영적으로 중요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만물들과 우리의 관계가 미국문화 안에서 구조화 돼 왔는지와 더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환경단체인 "Plant With Purpose"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2030년까지 그 수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이 단체의 필리페 라자로(Philippe Lazaro)는 왜 교회공동체가 환경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hy Churches Should Be Talking About the Environment).

만물에 대한 우리의 돌봄은 우리의 영적 삶을 이루는 매우 관련 있는 요소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시24:1).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를 위해 고안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러한 관계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서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창조가 포함된다. 가난, 오염, 불평등, 기후 변화 등 우리 지구가 직면한 문제는 단절된 관계의 결과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관리에 관한 설교는 오늘



자연을 잘 돌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의 하나이다.

태를 취할 수 있다.

로마서 5:3-4는 우리에게 현재의 현실에서 더 큰 희망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로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담론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런 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

환경과 천연자원은 인간이 책임 갖고 관리하도록 부름 받은 것 전 세계 농업인구 70%...극빈국일수록 높고 그중 여성이 70%

날의 교인들에게 다소 친숙하긴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은 종종 재정 자원에 대한 관리, 또는 아마도 시간 자원이나 재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할 뿐이다.

하지만 환경과 천연자원은 또한 우리가 사랑을 다해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부름 받은 것들이다. 신학자이자 환경 옹호자인 리치터(Sandra Richter)는 잠언 14:1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땅은 주님의 것이며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탐욕으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만물로부터 경이로움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참새, 야생화, 그리고 자연의 다른 요소들로부터 오는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고 권면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나는 자연을 하나님께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선전신국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창조 행위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를 성찰하고 그 선함을 인정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창1:31).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의도함으로써

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환경 관련 담론들 가운데서 독특한 희망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대체로 오늘날의 문화에서 환경에 대한 담론이 종종 분노, 무력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교회는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희망의 전망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환경 대화를 둘러싼 이러한 불쾌한 감정들의 대부분은 환경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종의 멸종, 불안정한 날씨 패턴, 또는 가뭄 가운데 충분한 식량을 기르기 위한 시골 농부의 투쟁의 형

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 어떤 것에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자연의 경이로움은 그 자체로 우리 창조주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환경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계명'에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

환경은 전 세계 빈곤의 주요 기여자다. 빈곤이 심한 나라들의 인구를 보고 인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농촌 인구나, 인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계수단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약 70% 정도의 일반적인 추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1.25Acre 부지
General Commercial
80석 상권
프로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장 내시경, 위장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장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국 판매처: 국민일보 02-781-9870
미주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1)718-886-4400 www.hisfingermall.com

Hisfinger

편집 디자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 히즈핑거

소득증가, 더 많은 위험 감소...

(1면에서 계속)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흥청망청 소비를 늘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다.

역사학자들은 흑사병이 유럽 사람들을 더 진취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믿는다. 집에 머물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병마에 휩쓸려 죽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아 배에 올라 항해하는 상대적 위험은 과거보다 낮아진다.

예일대학교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Nicholas Christakis) 교수는 최근에 발간한 저서 "아폴론의 화살(Apollo's Arrow)"에서 스페인 독감이 퍼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분석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신규 창업 스타트업 붐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기업가들이 위기로 인한 시장 공백을 메우기 위

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유한 나라에서 신규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팬데믹이 불러온 또 다른 변화를 지목했다. 노동절약 기술의 활용이다. 기업은 질병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에볼라, 사스 등 최근 발생한 여러 전염병을 조사한 결과 팬데믹이 로봇의 도입을 확산했습니다. 특히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침체가 심각했을 때 로봇 도입이 크게 빨라졌습니다."

1920년 미국에서 급속한 자동화가 일어났고, 1900년대 초반 젊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전화교환원이 신속하게 자동응답기로 대체됐다. 경제학자들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인쇄기와 흑사병을 연결하기도 한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화가 진전된 사례는 적지 않지만, 아직 이번 팬데믹이 자동

화를 진전시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자동화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염병 시대에 오히려 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분석한다. 작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발간한 논문은 팬데믹을 거치며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질병이 노동자들을 쓰러뜨리면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섬뜩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화

포스트 팬데믹 붐의 세 번째 특징인 정치적 변화가 임금을 높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일 때, 노동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보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간간히 손을 쓰고 있다.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소속 3명의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불평등에 반대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때로 이런 압력은 정치적 혼란으로 분출된다. 전염병으로 기존의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나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변화를 요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2016년 발병한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의 시민폭력을 40%나 증가시켰다.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연구는 2001년 이후 133국에서 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를 비롯한 5개 전염병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전염병이 종식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회혼란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사회적 혼란은 팬데믹이 지나간 후 2년 차에 최고조에 달했다. 다가오는 호황을 마음껏 누리라, 머지않아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오늘날 중국의 젊은 층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정부가 국민 개인들에게 '행동점수'를 매겨 신용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마련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외국 기업들과 브랜드들을 보이콧함으로써 민족주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 받는 세대이기도 하다.

은 소위 '상문화(喪文化)', 문자 그대로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든 비관론에 기인한' 최후의 날 문화'라는 용어가 인기를 얻는 현상은 중국 젊은이들의 "저하된 직업윤리, 부족한 동기부여, 심드렁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국의 젊은 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이 점점 강화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두드러진다. 이들은 한 자녀정책 아래 성장했고, 인구 규모는 그들의 2배인데다 점점 은퇴자가 늘어나는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일할

에 있는 우리들 중 대부분에 비해 자연과 훨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세계 각지의 교회들은 이미 이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숲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반대하며, 책임과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만물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더 격렬하게 누워있고 싶다!' ...

(1면에서 계속)

중국의 뉴스사이트 식스톤(Sixth Tone)은 IMDb(영화 데이터베이스) 같은 콘텐츠 플랫폼 더우반에 개설된 "탕핑" 그룹에 60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우반 그룹은 "탕핑"을 처음 언급한 티에바게 시물과 함께 삭제됐다. 사람들이 "탕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증가세를 볼 수 없도록 인터넷 검열이 시행됐고, 시나 웨이보에서는 "탕핑"의 영문

해시태그 #TangPing의 검색이 금지됐다.

중국 미디어 분석가 케리 앨런은 중국의 젊은 층에게 점점 거세지는 압박에 대한 반항 내지 거부로 새로운 트렌드를 해석한다.

최근 수년간 유사한 트렌드가 있었다. 지난 2016년에는 1990년대 시트콤에서 축 늘어져 있는 한 중국배우의 사진이 인기 밈이 됐다. 그 다음 해 중국 젊은 누리꾼들은 구테타마로 불리는 "우울한 계란" 일본 만화캐릭터에 열광했다.

당시 뉴스 웹사이트 식스톤

웃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땅을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농부들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구촌 교회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담론과 설교들이 훨씬 흔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과 환경을 대하는 방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들은 3명의 기독교인 중 2명 정도를 대표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미국

급 농가 또는 소액보유농가)을 위해 이 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공정하게 일하고 빈곤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기후 변화와 다른 환경 문제들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만물에 대한 돌봄은...

(2면에서 계속)

하지만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수치가 80-90%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약 8억 명의 세계 취약 계층이 생존과 영양, 소득(자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시론
전자쓰레기처럼 종교쓰레기가 되었나
G7(Group of Seven) 정상회담이 영국 콘월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지난 13일 폐막되었다. 7개 회원국과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 초청되어 개최된 올해 G7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처럼 폐막과 함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토요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 지지와 미국의 대북외교 지지를 비롯해 북한의 대화 재개 촉구 등 70개 항목의 공동성명에는, 아쉽게도 불평등문제를 비롯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활동 등에 대해 충분한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구촌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각국 언론들은 '실망스러운 반쪽짜리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는 모든 나라의 신경이 집중된 공통이슈였다. 이를 반영하듯 개최일부터 눈길을 모은 한 편의 설치미술작품은 첫날부터 뉴스를 통해 전파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장인 콘월 입구에 설치된 이 작품은 이른바 쓰레기, 즉 전자폐기물을 재료로 해서 환경예술가인 조 러쉬(Joe Rush)와 15명의 아티스트가 함께 제작한 "Mount Recyclemore"라는 제목이 붙은 설치미술작품이었다. 이 작품이 이렇게 눈길을 끈 것은 작품의 모양이 7개국 정상(頂上)들의 얼굴이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을 접한 시민들 중에는 "아무리 전자폐기물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얼굴을 만든 것은 인격모독이 아닌가"라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일단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한 제작 목적은 소정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이미 30년 전인 1992년 16회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대회 때부터 그린올림픽(Green Olympic)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면서 대규모 콘도와 리조트, 경기장 등을 건설하면서 산림과 하천 등의 훼손문제에 대한 친환경 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94년 17회 릴리함메르 동계올림픽을 주관한 노르웨이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파해서 선수촌 선물과 경기장을 짓고, 시상대를 얼음으로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인쇄물에 재활용용지를 사용하면서 그린올림픽의 위상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지구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구촌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보다는 개인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설치된 전자폐기물을 재료로 만든 7개국 정상의 흉상작품이 다시 한번 지구촌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인간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 나아가 지구촌의 생존을 위해 환경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언론들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를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따를 때 훼손되고 있는 지구는 그나마 다시 숨을 쉬는 지구로 회복해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그나마 대처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신앙문제는 더 심각하다. 환경문제보다 더 시급하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미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동안 지켜오던 신앙전통을 마치 전자폐기물처럼 종교쓰레기 취급하며 무시되기 시작했다. 영성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감을 떨쳐냈고, zoom과 같은 화상미팅은 소그룹뿐 아니라 노회, 총회 등 대규모 모임에도 적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대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때 교회는 무엇을 취(取)하고 무엇을 버려야(捨)할 것인가? 이 방향을 누가 결정해줄 것인가? 논의할 G7과 같은 테이블도 없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없는 이 시대, 예수만이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여,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각자 앞뒤를 돌기 시작하자고 제안해볼까.
djee7777@gmail.com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VOL.1
heavens stars moon hisfigner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길

크로프트 M 펜츠라는 사람이 '모든 부모에게'라는 글을 썼습니다.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이상, 당신은 지혜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당신을 한

신적으로 믿고, 당신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은 매일 분이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이 글을 대하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이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를 연속적으로 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닳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심해도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보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연속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번뜩입니다.

실수하여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일어나는 모습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강한 복싱선수는 한 번도 다운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다운을 당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선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강한 성도는 한 번도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고 믿어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이

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던 어머니를 보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100일씩 철야를 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31살의 나이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며 정말 새벽예배 인도를 매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신학대학부터 대학원까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아침 늦게 서야 일어나는 나의 생활습관 때문에 새벽예배는 지옥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며 새벽을 깨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철없는 젊은 목회자인 나를 깨우며 제가 새벽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하고 나하고 돌아서만 새벽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 갑자기 찾아올 때 목사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새벽마다 들으며 교회로 향했고 그곳에 달랑 홀로 계시던 어머니 앞에서 1년을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은 어린아이들 돌보고 직장에 가야 했기에 새벽예배에 참석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면서 어머니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립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뭘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아 새벽예배 기도하시고 철야까지 하며 기도를 하시냐"고 물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는 기도하겠어. 그저 네 자식들 위해서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사가 성실히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저는 지금도 교회당에 들어

오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성실히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귀히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인 나에게서 그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로 하여금 어머니처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은 못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우리 자식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우리가 된다면 성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준성 목사

(뉴욕양무리교회)



1. 서론

유다 말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우리는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말합니다. 두 왕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다윗과 솔로몬에 필적할 정도라고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 13대왕으로 29년간 통치하면서 솔로몬 이후 가장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치렀으나 치명적인 병에서 치유 받고 생명이 15년을 연장되었을 때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탄생합니다.

므낫세는 14대왕으로 55년을 통치했으나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원점으로 돌린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요시아가 31년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보다 더 성대한 유월절 행사를 치렀지만 끝내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우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당,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성전에 제단, 아들을 불태우고 짐, 사술, 신접한 자, 박수... 왜 므낫세는 이런 일을 행했고 또 아합왕 이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을까요?

당시의 국제정세는 앗수르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독립을 꾀했지만 앗수르 산해립의 침공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야기합니다. 독립을 위해 바벨론과 교류도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BC 586).

히스기야 사망 당시 12살이던 므낫세는 앗수르의 보호아래 왕으로 책봉되었고 애굽의 제26왕조까지 후원했던 앗수르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들을 충성맹세용으로 삼고 조공도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일반대중을 위하여 민란 억제용으로 일월성신 같은 토속 신앙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는 앗수르 파벌과 바벨론 파벌 그리고 애굽 파벌 등으로 갈라진 유다의 내부 문제 때문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딘가의 속국으로 있어야 잘 살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성정은 므낫세를 하나님을 버린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2. 악한 기준이 무엇인가?

(1)선택의 기로 경제냐? 종교냐?(2-7절a)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

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란 믿는 자들이 어쩔 수 없다는 방식이며 속고 속이는 일이, 선보다 악을 행해야 내게 유익한 것을 보면서 편안한 세상살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목회자들의 고민은 대면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교제가 없는 신앙생

악한 왕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9절

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이 가장한 일을 따라서... 7절 성전에 세웠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을 이유가 있느냐?"

아마도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성전에 우상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므낫세는 하나님도 믿었고 국제적 상황에 따라 강대국의 신들도 섬겼을 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듯이 국제 정세에 순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문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는 없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도 처음에는 므낫세와 동일하게 이방신들을 성전에 두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

활이며 초대교회의 훌륭한 코이노니아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쩔 수 없었던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므낫세를 통한 성도들의 교훈입니다.

므낫세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의 치세 55년 동안 경제는 발전했고 삶은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외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속이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땅은 반란군이나 점령군이나 모두에게 지나가는 길목이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눈치는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변화에 발맞추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세상 사람들의 틈 속에서 늘 조마조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새기심으로 살았

던 므낫세가 아니라 날마다 희망과 평안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성전을 버린 신앙(7절b)

7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 신앙!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성전은 구별된 장소였으며 성막(출26, 27)으로 출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는 장소로 허락(출25:22)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비로소 회당이 형성되었지만 성전신앙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세는 성전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3)신명기적 관점(8절)

므낫세의 신앙을 신명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은 "내가 ...하면 나도 ...하겠다"입니다. 신명기 11:26, 30:19절은 대표적인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안 들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동일하게 본문 8절은 "만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하지 않게 하리라" 므낫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면 경제가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국가적으로 번영을 이룩했다 해도 결국 우상숭배로 책망 받았고 멸망한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비호아래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또한 왕권의 강화로 백성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면의 약간의 성공이 있었다 해도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는 냉정했고 그 판단대로라면 므낫세는 신앙 우선주의를 버린 세상과 뒤섞여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의 혼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므낫세 시대의 물질적인 약간의 성공은 백성들이 심판을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놓쳐 버린 마지막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므낫세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독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왜 유독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The Lord delights in you)라는 뜻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여인이 버림받는 길은 오직 하나로 부부 정절을 파괴한 음행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파괴한 음행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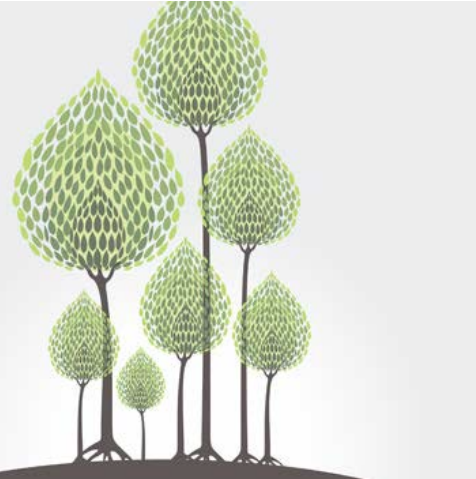
므낫세는 어머니의 신앙을 조금도 닳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다의 멸망 뒤에 하나님이 헵시바라 선언(사62:4)해서 구속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어머니의 신앙이 조금도 없었던 므낫세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새 이름을 헵시바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보스러운 하나님? 속이 없으신 하나님? 만신창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불러주십니다.

므낫세가 왜? 무엇이 악한가? 결국 성경은 그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책망했던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헵시바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붙들라는 간곡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신앙 우선으로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locks3927@gmail.com



긴장, 역설적 은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 교회 건물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일년 넘게 온라인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다보니 성도들의 예배가 많은 부분 무너진 것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출판된 도서와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예배의 회복에 관한 주제의 책들이다. 목회자들이 지금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자고 부르짖던 때가 있었단가 싶은 마음이다. 이것이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가장 영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가장 은혜의 갈급함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역설적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왜 목회자들이 교회의 예배 출석 상황에 대해 긴장하게 되는 것일까? 예배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를 향해, 마치 재정이 부족해서 목회자들이 교회경영을 위해 헌금을 거두기 위함이라고 매도한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다 파는 행위와 같은

두셨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구별됨이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보람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결국 저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그 결과 저들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기업들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을 만나 교통(교제)할 수 있었으며, 에덴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였다. 원형의 예배, 에덴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었다. 생명과 교제의 풍성한 누림이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형식조차 없었다. 특별한 규칙이 마련되어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사는 삶이 아닐 만큼 사람에게 중심이 옮겨져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배의 회복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한다. 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가? 왜 모든 인류가 예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하는가? 예배의 문제 때문이다. 인류전체 모두가 생명과 교제와 기업의 회복을 이루려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나라들의 죄로 인한 분열과 나뉘고, 파괴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상실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에덴에서의 말씀의 불순종, 예배의 상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모습이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예배다. 오직 예배이다. 에덴에서의 예배를 상실함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가 되는 것 외에 없다. 이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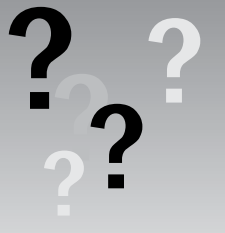
자비와 긍휼, 만물의 회복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일에 아주 성실하시다.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존재라 하여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가차 없이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 성품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는 일에도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인류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성실로 만나는 지점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었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언약대로 사랑과 긍휼을 덧입혀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분이시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로 조용하고 차분한 교회인데 목사님은 예배 설교 시에 은혜가 되면 아멘을 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나 통성기도 시에는 약간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로렌하이 김본선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사람들은 IQ가 높아야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니엘 콜먼이라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IQ가 인생의 성공에 공헌하는 비율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피터 셀로비 교수는 "Emotional intelligence"(감성지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기능)를 말하면서 자기감정을 잘 조절하는 어린이가 자라서 학업성적은 물론 대인관계도 좋고 인성도 뛰어났다면서 IQ보다 EI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EQ(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멘 신앙 가지면 교회 부흥

사람의 뇌는 두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IQ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나 우측 뇌는 주로 EQ(Emotional Quotient)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술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좌측뇌가 많이 개발된 사람의 장점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치밀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뇌가 개발된 사람은 감정관리를 잘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협력하기를 잘합니다. 성격도 낙천적이고 사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적용해봅시다. 주로 장로교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상당히 분석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좌측 뇌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이성적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너무 차분해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거나 찬양할 때 손드는 것이나 입으로 할렐루야 같은 것을 잘 못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늘 조용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우측뇌를 좀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를 자주 해보세요. 이것은 우측 뇌를 자극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멘을 잘하고 통성기도가 뜨겁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멘을 잘하면 설교자도 힘이 납니다. 아멘을 잘하고 통성기도 시에는 내 기도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약간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 고후 1:20절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 할 때 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예수님도 아멘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선상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assent)입니다. 아멘은 영어의 2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Joyful assent-기쁘게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willing to accept-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고 열납하시는 주체는 처음 만들어낸, 그래서 언젠가는 소멸할 어떤 유행의 어젠다와 같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열납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회복은 오늘날 코로나를 지나며, 그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에 따른 간절함으로, 또 어떤 상황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예배회복, 인류의 과제

- 복음, 모든 민족, 행복한 예배자

것이다. 교회를 사업장 비즈니스로 여기고 쉽게 말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의 영혼은 가계에 진열된 물건상품에 불과하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약해졌다는 증빙이 된다.

세상회복의 원형

예배의 회복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원형과 기본이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시려고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흠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며 이들을 창설하신 동방 에덴에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그들은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한 대로 살지 않으면 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다른 피조물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로 세워진 것이다.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배실패와 기업의 상실

에덴의 예배가 살아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주신 복이 저들에게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저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먹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 에덴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한가지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예배의 무너짐과 결을 같이 한다. 성경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예들이다.

불순종으로 인한 에덴의 예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생명은 무한에서 유한으로 전환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땅의 기업은 인생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인생의 종신토록 수고함과 땀흘림을 통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예배의 회복, 인류의 회복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예배의 실패는 인류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의미는 예

이것은 왜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에덴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만남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때,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 올바르게 예배를 회복한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주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인생의 예배를 받아주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악 가운데서도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옷,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죄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 된 인생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복을 위한 길을 스스로 열어주시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교제하였고 생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쳤다. 때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그를 만나고 교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바라는 이들에게 주시는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회복을 바라보게 되고,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의 회복, 인류의 과제

예배의 회복은 마침내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 예배회복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 곧 기업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예배회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기업이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구약에서는 제사와 제사장 백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희생 사람 섬김 등 수많은 단어들로 파생되어 나타난다. 여러 가지 퍼즐처럼 나누어져 있지만 한가지로 짝을 맞추어 보면 결국은 예배라는 뜻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은 진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결코 변할 수 없고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예배의 시조는 하나님이며, 단의 제사로부터 예배를 받으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무엇이 중한가?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명예교수는 100세가 되던 때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면 젊었을 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인생의 절정기는 청년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회로애락을 소화할 수 있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라며 돌아가갈 수 있다면 60대쯤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누군가가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대답하겠다고 해서 나이가 드니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부질없으나 남을 위해 산 것만은 보람으로 남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이라며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했다.

오늘 문화동원연구소 6월 이사회를 역삼동에 있는 행복 한교회에서 모였다. 이 교회의

최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간증한다. 어떤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그게 무슨 간증이나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최 목사는 특별했다. 고2 때 위(胃)부터 매우 중요한 장기를 절제했기에 스스로를 속이 없는 사람이라 소개할 정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일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언제든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지금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역삼동으로 잠시 교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건물주인인 심 권사가 100억 대의 그 건물을 교회에 헌물하겠다는 것조차 극구 손사래를 치는 중이라고 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임이 끝날 때쯤 잠시 참여한 심 권사는 여러 종교에 심취했던 지난날의 허울을 벗

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최 목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참 성도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했다. 100억 대의 건물을 기꺼이 헌물하겠다는 심 권사나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속이 없는 최 목사에게는 무엇이 중한 것일까? 세상 혹은 인생을 초월한 것이 아닐까 싶지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더더욱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심 권사는 행복한교회가 파주에 소재할 때부터 출석한 성도였기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미 깨달았을 것이고 최 목사는 건강을 잃었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부질없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변수는 아직도 여전하다. 인류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아 면역력이 생긴다 해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떤 영역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어디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던 이전의 삶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달을 넘어 화성을 오가고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똑 같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들어낼 정도로 자라하던 세상이었으나 코로나바 이러스라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의해 거의 회복불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 혹은 반역의 참담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점이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뾰이로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뾰이로리 높다 하더라는 시조가 있지만 사람이 혹 뾰이는 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하늘에는 오를 수가 없다.

인류의 물질문명과 첨단기

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는 절대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까지 오르겠다고 미련한 바벨탑을 반복하여 쌓는 것이 죄 된 인간의 속성이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미련한 발버둥이 거듭될수록 이 세상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며 간과하는 까닭이다.

무엇이 중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인 인간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김형석 교수의 경륜처럼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는 일이다.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대한성서교회, 가봉에 불어성경 3590부 기증

대한성서교회(사장 권의현)는 아프리카 가봉성서교회에 불어 성경 3590부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식은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교회 반포센터에서 열렸다. 가봉은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로 인구의 75%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경제 형편상 성경을 개인 소장한 신자 수는 적은 편이다. 성경이 없는 이들은 보통 목회자의 설교 등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접한다. 피에리 마비알라 가봉성서교회 총무는 "대한성서교회에서 전달되는 성경이 우리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라며 영상으로 감사를 전했다.

가봉성서교회 기증은 2017년부터 매년 세계 곳곳에 성경을 보내는 후원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 후원자는 기증식에서 "이번 기증으로 가봉의 모든 생활 터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믿는 민족으로서 긍지를 갖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호재민 대한성서교회 총무 역시 "가봉에 후원한 불어 성경 3590부가 성경을 구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비롯해 글을 배워 성경을 직접 읽기 원하는 여러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일복음주의교회협의회 의장은 25세 여성철학도

독일복음주의교회협의회(EKD·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는 역사상 최초로 25세 여성 철학도가 의장에 당선돼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주인공은 안나 니콜 하인리히(사진)로 지난 5월 6-8일 온라인 총회에서 선출됐다. 전임 의장은 54세 차이다. 하인리히 의장은 바이에른주 루터교회 대학원생으로 지난 수년간 EKD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독일 개신교청년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EKD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신앙노선을 '신학은 진보, 신앙은 은사주의'라고 밝혔다.

독일교회에서는 하인리히 의장이 쇠퇴해가는 독일교회를 개혁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인리히 의장은 지난 총회에서 총 128명의 위원 중 75표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KD는 독일 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지역 연합교회들로 구성돼 있으며 2600만명의 교인이 소속돼있다. 1948년 설립됐다.

하인리히 의장은 당시 소감에서 "나를 의장에 선출할 정도로 교회가 큰 용기를 보여줬다"며 "나는 전임의장의 3분의 1도 살지 않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싶지도 않다. (전임자와는) 언어와 행동이 다르지만 나의 임무는 교회현장에 총회적인 관심사를 가져오는 것

이다. 우리는 다른 세대의 하나님의 두 자녀이며 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KD는 총회의 지도력이 이원화돼 있다. 총회장이 행정과 대외적 임무를 수행한다면, 의장은 대내적 역할을 맡아 EKD 사업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하인리히 의장은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필요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이는 교회의 경험과 연결돼야 한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반성하면서 교회의 좋은 점은 보존하되, 영적이며 신학적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KD 총회에 대해서도 "나는 열려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선교회 교회를 대표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연소 의장을 보는 외부 시선은 긍정적이다. 루터교 세계연맹(WLF) 유럽 지역 총무 이레누스 루카스 박사는 "하인리히를 선출한 것은 능력과 경험을 인정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다음세대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기대"라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청년들을 미래의 인적자원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천지·전능신교는 양의 가족을 쓴 늑대"

중국 교회와 선교회 연합체인 소금과빛중국연합선교회는 최근 '누가 나의 형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천지가 중국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교로 큰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신천지는 양가족을 쓴 늑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선교회는 "신천지 사이비 종교가 중국의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관련 법규를 어기며 교주를 신격화해 축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서 "중국 정부가 신천지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락하면 정상적인 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단 사교의 침입을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사로잡힌 신도들을 마땅히 제때 권면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고집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선교회는 최근 '이단 사교를 경계하자'라는 성명도 내고 "전능신교는 중국 하이룽장성 출신의 자오웨이산이 만든 사이비 종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신이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잘 모른 채 교주로 받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능신교는 사교, 괴력난신, 종교의 이름을 빌려 축재하고 음행하며 명예를 탐한다"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모두 정통 교리에 반하

고 가치관을 왜곡하며 반인륜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이단 사이비를 제대로 선별, 이들이 종교를 교란하고 종교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재개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텍사스주 국경 도시 델 리오에서 개최한 국경 안보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했으나, 텍사스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보트 주지사는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경 장벽 건설을 시작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미 관세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50여 개국 불법 월경자와 출입국 관리 사이에 18만 34건의 접촉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긴급 선언한 '제42호 보건 조항'을 시행하며 국경 통과 건수가 2020년 3, 4월 크게 줄었으나, 2020년 5월부터 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첫 달인 지난 2월 10만 건을 돌파했다.

텍사스주는 장벽 건설 등 국경 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경 장벽 건설 재개를 위한 세부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에보트 주지사는 "우리 모두가 불법 이민과 밀수의 흐름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은 11일 성명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해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자금을 지원받는지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성별은 불변" 발언 애고 영연구원, 항소심 승리

자신의 트위터에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영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글로벌개발센터(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CGD) 마야 포스테이터(Maya Forstater) 연구원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은 여성으로 바뀔 수 없다", "성(sex)은 불변하며,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결합되지 않는다"는 트윗을 올린 후, 연구소와 계약 갱신이 되지 않자 연구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그녀는 또 성별자기인식(gender self-identification)을 허용하는 성별인정법(GRA)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혐오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고용심판원의 제임스 테일러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녀의 견해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초두리(Choudhury) 대법관이 이끈 항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포스테이

터의 신념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고용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은 "시민결합 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결혼은 이성 커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GRA의 미 내에서 '모든 목적을 위해' 후천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청구인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볼 때, 트랜스젠더도 여전히 출생 시 성별'이라고 믿고 주장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신념을 가진 자유가 있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생계를 빼앗는 것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성정체성에 대한 비판적인 신념과 긍정적인 신념 모두 평등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젠더 남성은 남성이며 이를 거부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념을 강제로 고백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한 단계가 트랜스젠더 권익 기관의 장려에 따른 그들의 정책이 성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을 차별하고 있던 것은 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평등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종교적·철학적 신념은 보호되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주제가 훨씬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신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해도,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따른 차별에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위스콘신 대법 "중학교 대면수업 금지 불가"

위스콘신 대법원은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건 응급 상황에서 지역 보건부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대면수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2일 폭스6에 의하면 대법원은 메디슨 공중 보건부와 데인 카운티가 헌법상 명시된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4대 3으로 판결했다.

레베카 브래들리 판사는 "지역 보건부가 보건 비상 사태 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은 합리적인 공공연한 권한 부여(open-ended grant of authority)로 읽힐 수 없다"고 했다.

또 "청원자들은 어린이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에게 안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학생, 교사, 교직원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면교육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을 지출했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스콘신주민들이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연방 헌법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욱 자세하게 종교 자유권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이 소송은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의 대면교육을 금지하는 데인 카운티의 수정된 보건 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CP는 "제한조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학기는 끝났으나, 향후 보건부서의 권한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용

요즘 한국에서 트로트음악이 유행하고 있다. 참 흥미로운 일이다. 과거 포크송과 팝송에 심취해 있던 7080세대에게 트로트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낡은 음악이었다.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던 자신들과 트로트를 좋아하던 부모님 세대 사이에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이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로트 음악이 유행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7080세대 또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포기하고 부모님 또는 조부모의 음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 있듯이, 어르신들 역시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을 즐겨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생소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불편 없이 예능의 한 부분에 자리하게 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 예배스타일과 이때 부르는 찬송의 스타일에서 분명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찬송가와 성경책을 직접 펴서 사용하는 것이 선호하는 성도들과 예배당 앞쪽에 비치된 스크린 사용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더 이상 찬송가집에 수록된 전통적 형태의 찬송과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복음송 사이에 구분이 없다. 예배시간에 사용되는 악기도 마찬가지다. 피아노와 오르간 이외에도 관현악기는 물론 드럼을 포함한 전자악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인해 끊이지 않았던 초기의 갈등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자. 교회에서 젊은 세대를 놓칠 수 없으니 그들의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관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이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 이 시대의 정신이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간주하던 것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내 것이 옳으면 상대의 것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과 신앙

지금 우리는 관용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요구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침묵하는 태도를 높이 쳤다. 지금은 다르다. 관용은 나와 다른 상대를 수용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관용은 표현

의 자유를 동반시키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독선적 행위라며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교회 내에서조차 신앙적 관용을 미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관용적 태도와 바른 신앙은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을 융화시키는 사회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진리는 그 어느 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관용정신을 수용하려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고백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십자가 복음을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근대에 어떤 일이?

스의 기본정신이기도 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성의 시대를 알리며 나타난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에 올려놓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지닌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 지닌 잠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에 매진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간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교회와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거부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모던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네 데카르트(1596-1650)의 영향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자율적 주체로 규정하고 개인의 경험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근대사상은 과학혁명에 힘입어 인간의 미래

게 된 슬픈 현실의 역사적 근거이다.

모더니즘 이후

이성의 가치를 절대화 하였던 모더니즘도 한계가 있었다. 회의론자로 불리는 데이빗 흄(1711-1776)은 경험주의 체계를 중심한 이신론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이에 반응하여 보다 능동적인 이성을 소개하였다. 그는 인간의 경험 안에 존재하는 대상과 그 범위 밖에 있는 대상 사이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실천적 측면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칸트는 모더니즘이 강조해오던 자율적 자아의 중요성을 더욱

편 절대적인 틀에 넣고 이해시키려 하면 도리어 반감을 일으킨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 역시 중심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사상을 심어주려는 것을 행위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연극이나 소설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작가의 몫이 아니고 관객과 독자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열어 놓는다. 전혀 조화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병치하는 미술의 콜라주 기법도 포스트모던의 특별한 형태이다. 이런 모습은 연극에서도 보이는데, 배우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완성해가도록 한다. 소설과 영화에서는, 현실과 허구 또는 영원과 내재 등 대조되는 장면을 동시에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중심을 흐려놓는다. 이때에도 관객이 알아서 줄거리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거부해야 할 정신

자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성을 통한 논리적 결론에 대한 관심이 없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의 정신의 영향력 때문이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짓는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개인의 감정과 직관에 따라 판단하도록 맡겨둘 것을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포스트모던 정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산물인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삶이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그 누구도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정보를 대하는 나의 몫이다.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는 식당을 고르면 되고,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를 훑어보고 마음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중심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정신은 건전한 신앙의 적이다.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미덕을 높이 사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계시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 진리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수용될 수 없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특정한 기준과 진리를 상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거스르는 불변한 삶을 요구한다. 복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불변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물론 인간의 감정과 직관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성경적 진리를 벗어난 신앙에 대한 관용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기에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covenanta@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7)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3) - 신앙적 관용의 함정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미덕을 높이 사면서, 계시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 진리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수용될 수 없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대항하여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장한 결과 개신교의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의 개혁을 논할 때 주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6세기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적용하려 할 때에 기대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6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흘러온 역사 안에 답이 우리가 찾는 있다. 지각의 변화로 지진이 일어나면 든든한 기초 위에 집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동안 인간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17세기 중반에 시작된 '근대사상' 즉 모더니즘의 출현이다.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인간 자체이다. 이런 태도는 종교개혁 전 14세기부터 나타났던 르네상

에 대한 난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아쉽게도 과학 활동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더해질수록 초월적인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태도가 분명해졌다. 그들이 지녔던 과학적 사고는 계시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애석하게도 성경이 과학의 검증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이신론(Deism)'은 이성에 근거한 이론으로서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 대신 종교의 역할을 제한시켜 신앙의 체계가 아닌 도덕적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는 원리로 전락시켰다.

결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계몽주의 이후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을 지닌 교회는 무차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럽사회는 모더니즘을 폐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중심의 세속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의 모습이 현재 관광지와 박물관으로 남아있

강조하게 되었다. 이로써 근대 사상은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 급진적 개인주의로 전환하게 되었고, 인간이 객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의 길이 열렸다.

현재 우리는 모더니티에서 포스트모더니티로 전환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모더니티에 대한 반감을 기초로 1930년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문화적 현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서구를 지배하고 있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그 현상이 촉진되었다.

산업화 시대를 대신하여 나타난 정보화 시대는 날이 갈수록 온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지구 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방송 전문기관이 주로 담당했던 뉴스전달이 지금은 유튜브에 의해 보다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다. 특징적인 상황에 따라 각색되지 않은 채 전달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수신자 각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 사건을 어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including: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배이사이드 장로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어린양 개혁 교회, 빛과소금교회, 쾨츠장로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리더십 코멘터리 (13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핵심

교회의 변화에 필요한 리더십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인류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지구촌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흐름을 전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안주하기를 고집하는 조직은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 또한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다. 리더에게

나눔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다. 지성이 부족했던 예수의 제자들, 언변이 부족했던 모세나 바울 등 여러 자질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리더들에게는 모든 자질이 아닌 상황에 맞는 자질들이 필요하다. 넷째로,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소명과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①크리스천 리더는 남보다 더 은혜를 받은 부분에서 감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 ②크리스천 리더는 십자가를 통해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크리스천 리더는 선천적 자질 뿐 아니라 후천적 경험을 통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리더십의 재생산 과정과 리더의 5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구절에 보면, 바울로부터 시작해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리더십이 4대에 걸쳐 재생산된다. 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리더의 5대 특성은 ①리더는 훈련받은 사람이며 ②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이며 ③충성된 사람이야 하며 ④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자이며 ⑤가르치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확산하는 자로서의 리더를 정의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역시 예수이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예수 닮은 리더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란 구절이다. 성경 가운데 예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리더는 정신적이고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며 사회생활도 원만해야 한다. 리더는 전인적으로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중요 전문성, 신념과 용기, 결단과 조정, 긍지와 솔선수범 요구돼

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기독교의 변화에 필요한 리더십을 연구해보자.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특성

첫째로, 변화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은 물리적, 강압적 힘을 뜻하는 권력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승인을 얻어내는 권위에 달려있다. 리더의 지위, 학벌, 재물, 명예 등은 리더십의 부수적 구성요소일 뿐이며 리더십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리더의 인격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초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변화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 전문성이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리더의 영적 전문성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①리더는 성도를 다루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은사에 따라 그들을 무장시켜 봉사하게 해야 한다. ②리더는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들은 수없이 많지만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

해 완성되기 때문에 리더십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다섯째로, 리더십은 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 내 투표를 통해 교회에서 축출 당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뉴저지대학(프린스턴대학의 전신)의 총장으로 선임되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훌륭한 리더십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여섯째로, 리더십은 리더의 조직과 당대를 뛰어넘는다. 탁월한 리더십의 영향력과 범위는 그가 맡고 있는 조직과 당대를 뛰어넘는다. 따라서 리더들은 계승, 재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로, 리더십은 상호관계이다. 리더십을 정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영향력이고 교제 없이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상호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리더와 그 추종자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

여덟째로, 리더십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평가된다. 현대사회의 리더십은 대중의 욕구와 정서를 반영하며 사람들의 인정에 영향을 받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으려고 하는 리더는 진정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야 한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

리더가 조직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리더부터 모델이 되는 일이다. 실력 있는 리더, 신뢰 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리더와 개인 간의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런 대인관계가 전체 팀 조직으로 확산되면 팀 조직 간에 격려와 상호작용을 통해 큰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신뢰관계에서 리더는 큰 조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empowering)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는 조직이 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다.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에게는 전문성, 신념과 용기, 결단과 조정, 긍지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sondongwon@g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회복(4)

이젠 화도 안 나고 그냥 슬퍼요

질문: 오늘 아침에, 베이컨 에그 후라이 그리고 보리빵 토스트 냄새에 벌떡 일어나니, 아빠의 ‘어서 아침 먹고 학교 가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꿈이 있던 거지요. 엄마가 집을 떠난 이후로 아침식사는 언제든지 차가운 씨리얼이에요. 학교도 가기 싫고 다시 품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울어버렸지요.

아이의 슬픔 수용해주고 좋은신 하나님 소개

답변: 자녀들은 그들 삶의 기반이 되는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안정감을 잃게 되고 슬픔에 젖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곧 재결합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결국 슬픔에 잠기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겪게 되는 환경의 변화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며 이사와 더불어 전학으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외가 혹은 친가식구들과의 만남에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밖에 새로운 엄마나 아빠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슬픔 속에 빠지면서 보이는 증상은 주위 사람을 피해 혼자 있고 싶어 하며 말수가 줄면서 취미활동 등에 흥미를 잃으며 기운 없이 앉아 있으려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며 과식을 하거나 식욕을 잃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예민해지고 자주 울게 되는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엄마나 아빠를 곧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혹은 ‘네가 이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등의 설명을 하려 하지 말고 아이의 슬픔을 수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흡족하고 뚜렷한 치유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이혼가정 자녀를 마주하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네가 슬픈 것 같이 보이는 데... 네가 슬프구나...’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도록 하면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거야. 하지만 네가 슬프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지. 네가 커가면서 여러 번 슬퍼질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은 괜찮아지면서 네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너의 부모님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새 학교로 가더라도 곧 친한 친구를 얻게 되고 엄마 아빠가 다른 집에 살게 되더라도 곧 익숙해질 거야.’

다음으로 창세기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느 엄마와 어린 아들이 길을 떠나야했다. 음식은 고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그 엄마는 통곡을 하게 되지. 그때 하나님은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아들이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려 주시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행복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려보자.’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as Vegas,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심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i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얼른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3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불 같은 연단의 축복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신앙지에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회사가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회사발전을 위해 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어렵게 들어온 집사님 한 분이 고민하다가 사표 날 각오를 하고 당직실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그 집사님의 이름이 들려져도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고사가 끝난 후 회장에게 불려갔을 때, 그 집사님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사표를 써서 갖지만 회장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던데 원 부장은 왜 절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난 원 부장처럼 확실한 사람이 좋아”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중요한 공장에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금과 순금은 500도 되는 불 속

에서 정체가 드러나듯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는 고난과 시련 앞에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욥기 23:10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 불에서 금을 단련하시듯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불로 단련하십니다. 그리하여 유약한 병아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강인한 독수리 크리스천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를 강하게 연단하여 강인한 신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모두 머리에 돌을 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강 한 가운데 가면 물살이 어찌나 센지 돌을 지

고 가지 아니하면 떠내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어깨에 매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이르러 랍비는 제자들에게 각각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데 먼저 가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밑에 내동댕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라구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으나...” 그러자, “설마 무게가 똑같은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지고 갔고, 저만 절절 매었다는 것이니까?” 랍비가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갖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는 이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지고갈 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지고 감사함으로 지고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지난 1년2개월이 넘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 짐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지금 270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통해 예배와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2-4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야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1:12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에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영광 주시기 위함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 연단을 거치고 성숙한 성도,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 주

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정글과 오지에서 고생하면서도 견딜 수 있을까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의 일하다가 역올한 일 당해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특권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8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들을 마다 채찍질하시고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주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에 남다른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는 모두 순교자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산 순교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인해 감사드리는 성도되시길 바랍니다. songpak@hotmail.com



그레이스미션대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제들과 교수 및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

그레이스미션대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 2021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7일 오후 7시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려 총 41명이 졸업했다. 최규남 총장은 “GMU리더십은 수년 동안 학생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자 되게 하기 위해 3가지 형성 즉 신학형성, 영성형성, 사역형성이 되도록 가르쳤다”며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3가지 미션은 첫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바란다. 둘째, 복음주의신학의 전달자가 되길 바란다. 셋째,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셨고 집중제자훈련을 베푸셨고 제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며 “예수님을 닮아 참 제자가 돼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동

행해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무처장 김현완 교수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백성렬 교수가 기도했으며 제임스 조 교수가 성경봉독, 한기홍 목사(이사장)이 ‘선교색깔이 나타나는 삶이 되자(행20:17-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최규남 총장이 학위수여했으며 총장, 총회장, 이사장 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규남 총장이 관면, 김종우 총회상임총무 축사, 함완구 동문회장 격려사,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특송, 이지원 졸업생 감사, 공로 및 감사패 증정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한기홍 이사장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교차문 화학학박사 1명 △신교학박사 4명 △목회학석사 12명 △기독교교육학석사 4명 △신교학석사 3명 △기독교상담학석사 1명 △학사 1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박준호 기자>



지난 6월 6일 필라 안디옥교회 주일예배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삶을 구조조정 하라”

필라 안디옥교회 6월 6일 전면오픈

팬실베니아 주정부가 5월 31일 기점으로 그동안의 모임 제한 인원을 해제하면서 필라 안디옥교회는 지난 6월 6일 주일, 교회를 전면 오픈하고 예배를 드렸다. 1년 3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호성기 담임목사는 코비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가장 안전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강조했다.

코비드 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된 지난 6일, 성도들은 ‘안디옥교회는 가장 안전하고 모범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자부심과 함께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부터 영아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박찬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번 전면 오픈을 계기로 안디옥교회는 “Reset이 아니라 Restructuring(구조조정)”의 비전으로 나아가길 예정이다. 호성기 목사는 코비드가 종식됐을 때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팬데믹 기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말씀중심, 기도중심, 예수중심의 삶으로 구조조정해야 함을 줄곧 강조해왔다. 특별히 이날 “유월절이 내 인생의 첫날이면 됩니다”(출 12: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호성기 목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축복받은 날이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이기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되, 코로나로 인한 제한들이 풀려가는 이 시점에서, 절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청산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품고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필라 안디옥교회>

릭워렌 새들백교회 담임목사 은퇴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담임)가 새들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다. 릭워렌 목사는 6월 6일 주일, 그가 1980년에 설립한 남 캘리포니아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금년 67세의 워렌 목사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교회는 다음 주에 그의 후임자를 공식적으로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담임목사가 자리를 잡으면 워렌 목사는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며 창립목사의 역할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는 교회가 설립됐을 때부터 앞으로 40년 동안 새들백가족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회상했다. 2020년 초에 교회는 40주년을 맞이했다. “이것은 내 사역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한 워렌은 비디오를 통해 그리고레이크 포레스트 캠퍼스에서 직접 회중에게 “끝



의 시작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에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며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다음 전환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또한 교회는 아직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이미 ‘목적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교회 안팎에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워렌의 삶과 리더

십과 동의어다. 릭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를 목회하는 것 외에 그의 베스트셀러 책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으로 널리 알려졌다. 출판사 Simon & Schuster에 따르면 2002년에 출판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판매됐다. 앞서 나온 ‘새들백교회 이야기(The Purpose Driven Church)’는 1995년에 발매됐으며 백만 부 이상이 팔렸다. 새들백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회 중 하나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신문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교회는 매주 평균 3만 명의 참석자와 7천 개의 소규모 그룹이 있다. 교회는 독일, 아르헨티나, 홍콩, 필리핀에 15개의 국내 캠퍼스와 전 세계에 4개의 캠퍼스가 있다. 2010년 새들백은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선교팀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1991년에 교회는 현재 전 세계 3만5천 개 이상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Celebrate Recovery’ 사역을 시작했다. 2018년 새들백은 5만 번째 침례를 축하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버디버디 골프아카데미 게임데이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버디버디 골프아카데미 게임데이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는 위티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의 후원으로 지난 6개월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골프 프로그램인 Birdie Buddies Golf Academy(버디버디 골프 아카데미)를 5일 오후 4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의 제임스 김 프로그 커뮤니티에 기부 목적으로 자선골프대회를 열었고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차정인 전 회장과 퀸 실바 하원의원 사무실 박동우 보좌관이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수혜자로 추천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총 20명의 학생이 지원해 2명이 선발됐고 6개월간 개인 골프 레슨을 받았다. 이날

KASEC 버디버디 골프 아카데미 졸업 기념하며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Special Game Day 행사를 열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LPGA 선수인 에스터 리 선수가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고 샤론 퀸 실바 하원의원 사무실 박동우 보좌관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을 지도했던 엘리 김 프로그는 “골프는 장애의 유무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오직 각자가 가진 능력에 연성이 더해져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운동이다. 레슨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도 얼마든지 비장애 학생과 함께 조를 만들어 필드에서 서로 어울려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센터의 교육 코디네이터 윤여광 박사는 “자폐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회적 기술 영역(인사하기, 차례 기다리기, 관심을 공유하며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 등)인데, 골프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운동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운동이 발달장애인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기능, 의사소통 및 사회적 기술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사장 소장은 “기대보다 훨씬 잘해줘서 자랑스럽다. 이번 골프 프로그램의 효과와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 이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계속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스포츠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이 프로그램을 함께 후원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 프로그램 후원은 센터의 website www.kasecca.org/donation에서 할 수 있다. ▲문의: (562)926-2040 <박준호 기자>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라”

뉴스타트 성령부흥축제, 지용수 목사 초청 교계연합

지용수 목사 초청 교계연합 뉴스타트 성령 부흥축제가 9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미주한기부 교계연합회(회장 지용덕 목사) 주최로 열렸다.

주님의영광교회 찬양팀 찬양 인도와 박성규 목사(KPCA 증경총회장) 사회로 시작한 부흥 축제는 이성우 목사(성시화 사무총장)가 기도했으며 남가주 한인목사장로부부찬양단이 특송을, 서종운 목사(총무)가 성경봉독, 지경 교수와 남가주목사중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대회장)가 환영인사와 감사소개를 했으며 지용수 목사(찬원 양곡교회



뉴스타트 성령부흥축제에서 지용수 목사가 말씀을 전한 뒤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담임)가 ‘내 아버지의 집’(눅 2:41-4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용수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보시기에 좋지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깨끗이 못해도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지상에서 교회를 존재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이라 말했다.

또한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도 있지만 기본은 주일성수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

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주일성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집회는 정시우 목사(명예대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 집회 참석자는 “뉴스타트 성령부흥축제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며 “주일성수의 중요성을 짚어주셔서 감사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거리적 문제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 말하면서 온라인 예배는 부정적이어서 혼란스러웠다”라며 “온라인 예배에 입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가나안교인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가나안교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가나안교인 발생 원인제 공자를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ho is this King?’ 칸타타 공연

‘Who is this King?’ 칸타타 공연이 오는 27일(주일) 오후 7시 클레어몬트 누가루터교회(담임 티무티 시어스, 2050 N Indian Hills Blvd, Claremont)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클레어몬트 누가루터교회 성가대와 치노 시니어 합창단(지휘 최미화)이 합동공연 한다.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이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교회음악전공자 최미화 씨의 합동연주회 공연 좌석은 1인당 20달러. 이번 공연 티켓과 함께 CD 구매시 1인당 30달러로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얻는 모든 수익은 음악 선교비용으로 사용된다. 지휘자 최미화 씨는 이번 연주회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콘서트 후에는 교회 뒤뜰에서 다과가 있다.

▲문의: (713)702-6700 bluecmw77@gmail.com

행복한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예배

행복한 교회(담임 장경훈 목사) 설립 10주년 감사예배가 6월 27일(주일)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626)383-1141

GMU 채플린사역 무료 온라인 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신학생들의 졸업 후 병원 원목(채플린)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한 온라인설명회를 21일(월)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병원 원목과정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 교회사역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특별히 이번 강의는 현직 원목사역을 하고 있는 조셉채플린이 강사로 나서 병원이나 호스피스 등의 기관에서 직접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GMU학위과정과 어떻게 연결하고 준비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된다.

▲문의: (714)525-0088(Ext 101)

정창균 음악목사 별세

색스폰 연주자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던 정창균 목사가 지난달 21일 별세해 6월 19일(토) 장례예배가 열린다. 향년 76세. 남가주 기독교계에서 음악목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찬양예배를 이끌었고 한국에 초청돼 수많은 교회에서 부인 정태미 사모와 간증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던 정목사는 1998년 3개로 색스폰을 부는 게 가능해져 기네스북에 올랐고 LA타임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장례예배는 나명철 목사(다우니 세계아가페선교회) 담임 집례로 19일 오전 11시30분 한국장외사(2045 W Washington Blvd)에서 열리며 장지는 홀리크로스(5835 W. Slauson Ave, Culver City)로 정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태미 사모와 4녀(올리비아, 이바, 미혜, 은혜)가 있다.

▲문의: (213)215-3990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한승범목사 임직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철저한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한승범목사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캘리포니아노회(노회장 연제선 목사)가 6월 13일 오후 5시 행복한교회(담임 장경훈 목사)에서 한승범 목사 임직식을 가졌다.

한승범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년 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신학교 졸업 후 10년이 지났다. 20년 동안 수만번 하나님께 질문을 받은 것 같다”며 “주님께서 제 막을 부족한 제 자신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목사는 “이 자리

까지 함께 있어준 아내와 기도해준 가족에게 감사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훈계, 기도,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제선 목사 집례로 열린 임직예배는 부노회장 이근환 목사가 기도했으며 회의록 서기 김태형 목사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연제선 목사가 ‘목사에게 필요한 것’(왕하2:9, 렘4: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연제선 목사는 “새로운 주의 종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이다. 목사는 철저히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목사는 어디에 있던지 어디를 가든지 평생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게 돼 있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영성, 둘째 눈물이다. 주님을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 한승범 강도사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 능력 그리고 예레미야가 흘렸던 영혼들을 위한 눈물을 구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에 이어 이은수 목사(서기)가 임직자를 소개했으며 연제선 목사가 서약한 뒤 안수기도, 성의착의, 악수례, 공포, 목사 안수증 및 임직패를 수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장경훈 목사 와 직전노회장 정석수 목사가 권면을, 증경노회장 박찬식 목사가 축사, 이은수 목사 축가, 한승범 목사 답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한승범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용한 미디어 특강에서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그레이스미션대 미디어 공개특강 강사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한 미디어 공개특강이 14일 오전에 열렸다.

김정환 선교사(선미니스트리) 지도로 시작한 특강 첫날 강의는 제임스 구 교수(본교 행정처장)가 강사로 나서 △비디오와 오디오 개념 △HDMI 통한 비디오 및 오디오 설정 △파일포인터 및 영상 활용 방법 △YouTube Live Streaming 설정 △YouTube Live 영상 편집, 수정, 업데이트 △YouTube Still 장면 조정 및 활용 △ATEM mini pro의 주요기능 △ATEM Switchers 활용법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미디어 미니스트리를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다. 우선 미디어 사역자

들은 비디오 에디팅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시중에 수많은 영상관련 장비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시스템은 ATEM mini”이라 설명했으며 “영상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파이널컷, 파이널컷, 베가스 등이 있다. 소형교회의 경우 굳이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윈도우무비메이커 같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중형교회 이상일 경우 파이널컷이나 베가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영상미디어 사역자들은 단지 영상장비만 다룰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영상장비를 통해 유튜브 등 실시간으로 성도들에게 예배나 집회현상이 전달되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영상장비가 업그레이드될 때 동일하게 사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피동적으로 장비만 다루는 역할만 하게 된다”며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에서 미디어사역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 따라서 영상미디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뉴노멀시대 필요한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근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주민들은 MyTurn.ca.gov이나 VaccinateAll58.com을 방문하거나 (833)422-4255로 전화해 자격이 된다면 일정을 예약하고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자격 여부는 <https://covid19.ca.gov/vax-for-the-w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국방문 시 2주 격리해제

7월 1일부터 시행...LA 한국영사관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동안 2주 격리정책으로 인해 고국방문에 대해 염두를 내지 못해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자들에게 가뭇속 단비와 같은 선물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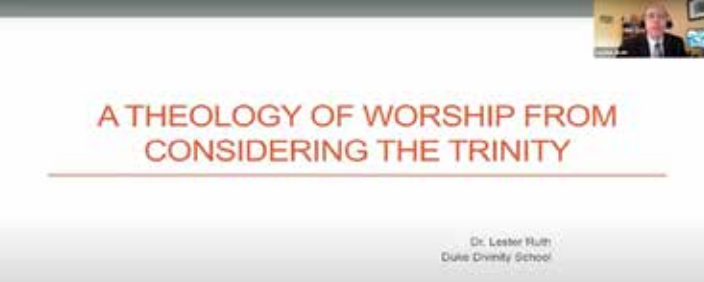
한국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 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정리: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예배학과 주관 예배찬양 세미나에서 레스터 루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에서 파생된 예배의 신학’

월드미션대 예배찬양 세미나, 강사 레스터 루스 박사

월드미션대 예배학과 주관 예배찬양 세미나가 12일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레스터 루스 박사(듀크신학대 교수)가 ‘삼위일체론에서 파생된 예배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루스 박사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신성 가운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의 존재로서 영원히 권능을 가지신다. 예배가 삼위일체성이 있는 것은 구원에도 삼위일체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삼위일체는 영원토록 존재해온 깊고 지속적인 하나 됨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로 묘사됐고 성령은 하나 됨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묘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배의 삼위일체성은 구원의 삼위일체성과 관련 있

다. 예배가 삼위일체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구원과 어떻게 관련돼있는가에 있다”며 “예배가 삼위일체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위일체적 예배란 하나님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뤄진다면 예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삼위일체적 예배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하나 됨을 의미하는데 개별적 존재는 하나 됨의 실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 또한 성도 개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사랑을 통해 성령님의 힘주심을 통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백신접종, 신앙공동체에 큰 유익”

가주보건국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열어

가주보건국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이 1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케빈 이 목사(에브리데이교회), 임헤빈 대표(FACE), 찰스 최 목사(태피스트리교회), 엘리 김 목사, 에리카 판 박사(캘리포니아주보건국 전염병학자)가 참석했다.

임헤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를 휩쓸는 동안 많은 한인교회들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했다. 봉쇄와 대면 모임의 중단은 신앙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격리는 어린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그들의 신앙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위해 성소 재개방을 시작하고, 6월 15일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면서 한인청소년 목회자들은 활력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 사회와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토론에는 주 전역에서 다양한 교단의 여러 한인교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은 백

신 덕분에 정상화로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며 모든 사람들이 교회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12세 이상 자녀의 백신접종을 권유했다.

케빈 이 목사는 “수련회에서부터 선교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우리는 예배를 구원하고 교회를 함께 경험하는 관점에서 백신 접종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최 목사는 “저의 희망은 신앙공동체가 백신 접종을 선택해 나가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백신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에리카 판 박사는 모든 부모들이 12세 이상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다. 판 박사는 “백신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리스트들은 아프면 집에 머무르고 백신접종 받지 않았다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상식적인 접

“광야에서 40년... ‘바른 교회’ 의 이상을 보여줬다” 예장합신 설립 40주년 기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박병화 목사)가 올해로 총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강남구 화평교회(이광태 목사)에서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물결’을 주제로 ‘합신 총회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현장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주요 관계자들만 참석했으며, 유튜브 ‘합신40주년’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국내외 노회 관계자와 소속 선교사들은 온라인 줌으로 접속했다.

박병화 총회장은 ‘은혜의 40년’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40년은 ‘광야 생활’이었으나 하나님의 날개짓 아래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돼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총의 나날이었다”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지금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부동체언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자”고 말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교단의 미래

발전은 도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상규 백석대 석좌교수는 ‘밖에서 본 합신총회 40년-합신의 역사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예장합신이 그동안 한국교회사에 있어 교회정치에 경각심을 주며 ‘바른 교회’의 이상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교회정치, 교권에서 자유롭고 깨끗한 교회로 인정받으며 교회의 개혁을 주창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산에 이바지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예장합신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보여주는 건실한 교단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처럼 혼탁한 교회 현실에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교회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에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상혁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합신 총회의 역사와 한국교회사적 의미”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암 박윤선(1905-1988) 목사 등이 과거 ‘분열주의’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예장합신의 전신인 합동신학교를 설립한 뜻을 살렸다. 안 교

수는 “정암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길 원했다”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구호 아래 모인 예장합신은 교회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에 대한 계속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신은 이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김명호 합신40주년기념대회 기획위원장은 “교단 내 농어촌, 개척, 미자립, 다음세대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작은교회 50곳을 우선 선정, 후원하는 ‘작은교회 살리기 서포터스’의 시작을 알린다”면서 “교단 내 작은교회를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실제로 도울 다양한 비법을 향후 10년간 매년 제공할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언문 ‘우리의 다짐’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교제를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설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하고 선교할 것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와 선교사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긍휼 사역과 공적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화자원 관광 사업화 사업’은 한국 근현대사를 지나오며 의료, 교육, 민족계몽 운동 등 한국사회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한국기독교가 남긴 전국의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해설이 있는 기독교 문화자원 순례길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월리엄 린튼이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한국 근현대사에 공로가 큰 50여명의 선교사를 선정해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선교사 전기 콘텐츠를 보급한다.

한교총은 사업 첫해인 올 연말까지 각 사업에 관한 학술논문 3편과 유진 벨 선교사 전기 등을 발표하고, 학술발표회도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지난달 11일엔 이철 한교총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총괄위원회가 조직됐다. 위원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무 오영기 목사, 신 사무총장, 서헌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이상규(고신대)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신 사무총장은 “국내 문화유산과 관련해 다른 종교와 비교해 기독교 유산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해법의 첫 단추로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안 마련과 함께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고민하며 나아가려 한다”면서 “기독교 문화유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참여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니터복음주의신학교 명예교수가 책임편집자를 맡아 책 전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최종 내용을 승인했다. 편집위원으로는 더글러스 J 무 후텐대 석좌교수와 리처드 S 헤스 덴버신학교 교수, TD 알렉산더 유니언신학대 교수 등 성경신학자가 참여해 신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카슨 교수는 편집자 서문에서 “편집자들은 조직신학처럼 성경 속 여러 신학적 질문에 관심을 쏟기 보다는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밀한 여백에 전개됐는지를 충실히 보여주자는 성경신학적 목적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팀 켈러 뉴욕 리더머장교

‘AI시대 인간중심의 리더십’ 명강사들 총출동 웨신대 주관 경기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중심 리더십 강의’가 경기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웨신대)에서 주관하는 16주간의 특별 강의 및 나눔의 시리지는 ‘포용과 협력’으로 나와 타인을 변화시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인간중심의 리더십을 키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다.

16주간 진행될 ‘AI 시대의 인간중심 리더십’이라는 이번 행사의 강사진은 화려하다. MIT 박사 출신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의 리더십),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저자 이해정 박사(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부모 리더십),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범생 되기), 글로벌 외교관 포럼의 설립자 제나 정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리더십),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의 저자 정상훈 박사(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은순 성평등전문관, ‘AI시대, 음악을 통한 대화’에 대해 나눔 심삼숙 교수, AI 시대 부업 리더십 전문가 고광자 음식문화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전문가 박병기 교수 등이 16주간의 행사에 특강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웨신대 측은 현재 래리 스피어스(서번트 리더십 대가), 대프니 콜러(코세라 공동 창립자),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에 등도 섭외 중이고 일부 강사는 수락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마무리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는 강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

의 후에 소모임에서 함께 강의 내용에 대해 나누고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토의, 토론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녹취하고 책으로 출판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데 있다. 참가자들은 ‘한정판(limited edition)’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강의 및 소모임 나눔/토론은 7월6일부터 11월 2일 까지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19의 상황에 맞춰 온라인 줌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융합한 형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 행사의 총괄 운영을 맡은 웨신대 미래교육리더십 김희경 원우 대표는 “능동적 여성 인재를 양성·배출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 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의를 통해 우리 여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초 근육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15만원, 등록 인원은 35명이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 3명 석방하라”

한복협, 11일 월례조찬기도회서 선언문 발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한복협은 현재 북한에 3명의 한국 선교사가 억류돼 있다고 이들의 석방을 위한 선언문을 11일 6월 월례조찬기도회에서 발표했다.

한복협이 밝힌 북한 억류 선교사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다. 한복협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는 한국기독교침례회 소속 목사로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주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선

교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병행해왔다. 그러다 2013년 10월 체포됐고 이듬해 5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총회 소속 목사인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부터 북한동포, 조선족 등을 돌보는 동시에 의약품과 의류, 농기계 등 대북 지원 사역을 펼쳐왔다. 2014년 12월 체포된 최춘길 선교사는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현재 7년째 억류 중이다.

예장합동 교회학교 공과앱 ‘하나바이블’ 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 공과 ‘하나바이블’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교회학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더프루닝’을 개발한 나무대표 김순종은 더프루닝의 온라인 성과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나바이블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앱을 12일 출시한다. 하나바이블 1과정 2학기 공과를 이용하는 교회는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바이블 학습앱은 미션존

과 가든존, 마켓존, 그리고 소셜존으로 구성돼 있다. 미션존에서는 공과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된 게임, 퀴즈 등의 미션을 학생들이 주중에 수행하고, 가든존에선 성과에 따라 부여받은 열매로 농장을 꾸민다. 열매는 마켓존에서 달란트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셜존은 교역자와 학생들,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령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도 달라진다. 영유아부와 유

치부 버전에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과 가정예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유년부와 초등부 버전에는 코딩 게임과 복습 게임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이 포함돼 있다.

김순종 대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세대 교육을 고민하는 총회의 모습이 더프루닝의 취지에도 잘 맞아 협력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며 “학생들과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만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신앙훈련을 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 함께 양육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개 교단 2개 단체 가입심의 통과

한교연 임원회, 특위로 시도소통위원회 신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8일 백령도 두무진교회에서 제10-3차 임원회를 열고 1개 교단과 2개 단체에 대한 가입 심의를 통과시키려는 한편 특별위원회로 시도소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새로 가입을 신

회 설립목사와 케빈 드영 그리스도연합교회 목사 등 미국 주요 목회자도 성경의 핵심 주제와 개념을 다루는 28편의 ‘주제별 소논문’ 필진으로 동참했다. 책에 구절별 주석 2만개와 표제어 3000개로 구성된 성구 사전, 수백 장의 사진 및 삽화, 수십 장의 지도와 도표가 실려 성경을 지리·문화적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강점이다.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 이재훈 은누리교회 목사 등 국내 대형교회 목사뿐 아니라 주요 교단 신학교 교수도 두루 추천사를 남겨 책을 향한 기대를 밝혔다.

시도 소통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김길수 목사(예장 합동)를 임명했으며, 명예회장에 심재선 목사(예장 통합)를 추대했다. 또 5월에 총회를 개최한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 기하성 총회장 강희국 목사를 각각 공동회장에, 기하성 부총회장 허종범 목사를 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일부 임원을 변경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오는 23일(수) 오후 7시 군포제일교회에서 6.25 71주년 기념예배, 30일 6.25 격전지 순례 등의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임원회는 또 특별위원회로

고단한 작은 교회에 활력을... 수서교회, ‘공유교회’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를 위해 서울 수서교회(황명환 목사)가 공유교회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도 옛 성전을 활용해 작은교회 6곳에 공유예배당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수서교회는 당회 결의를 거쳐 교회 인근에 또 다른 공유예배당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서교회는 주보를 통해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많은 개척

교회와 소형교회들이 자립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존과 자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예배공간을 구성하여 공유 및 제공함으로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이자 형제 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공유교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서교회 인근 서울 송파구 나 강남구에 50-60평 규모의 예배공간을 마련해 작은교회들이 각기 시간대를 나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전국기독교문화유산, DB 모으고 관광자원으로

한교총, 정부후원으로 보존·활용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준현 목사)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한국의 근대 기독교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교총 실행식 사무총장과 정찬수 사무국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실무자들과 ‘마스터플랜 연구위원회 및 연구원 선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날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짜고 추진하는 마스터플랜 연구위원으로 선임된 음선필 흥익대 교수, 조남제 씨인소프트 대표, 정순환 전 CBSi IT사업본부장 등과 세부 사업을 추진할 연구원 7명이 함께했다.

한교총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종교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목록화 사업’ ‘한국기독교정보센터(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지역교회별로 입력된 각종 콘텐츠와 사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손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앙허브 사료관리시스템과 지역교회별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종교문화자원 보존방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교총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 기독교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한국 기독교 문화 활동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1884년 첫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기독교 복음 정신을 전파한 이후 지금까지 조성된 기독교 문화유산이 그 대상이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나온다

성경신학자·목회자 65명 집필, 한국어판 21일 출간

DA 카슨, 팀 켈러 등 우수 성경신학자와 목회자 65명이 집필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사진)이 오는 21일 출간된다.

기독교 출판사 북있는사람은 미국 존더만 출판사가 2018년 펴낸 ‘NIV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의 한국어판을 번역·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책 한국어판은 북있는사람이 4년여간의 작업으로 완성한 노작(勞作)이다.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전권의 해설과 지도, 삽화 등이 실려 있어 설교 준비를 하는 목회자나

성경 연구를 하는 신학생·평신도가 주로 찾는다. 이번 책의 강점은 성경신학에 초점을 맞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점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가 성경신학인 만큼, 성경신학을 강조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사관 렌즈로 성경 구석구석을 세세히 조망한다.

65명의 필진 역시 성경신학자 위주로 꾸려졌다. 세계적 신약학자인 DA 카슨 미국 트리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새로운 방향

교도소 문서선교는 시작부터 주님이 인도해 나가셨다. 만일이 사역이 나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출판될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 만일 하나님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단 한권의 책도 출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인도해 주셨다.

“최고의 성인들”이 출판되던 2012년, 주님은 내게 더 이상 그 책 시리즈를 출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최고의 성인들”은 재소자들이 고통과 방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떠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엮은 간증집이다. 그 글을 읽는 재소자들은 많은 격려와 영감을 얻는다. 실제로 그들은 간증에 공감하며 자신이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재소자들이 상처로 인해 고통하며 마치 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고

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치유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신 앙서적이 시급하다. 만일 그들이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법 과 치유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잘 적응 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많은 재 소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다.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한 책

주님은 내게 치유에 관한 책 들을 많이 써서 트라우마와 영 적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셨다. 재소자 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있는 사 람들이다. 그들은 영적인 응급 실에 있는 사람들로써 영적인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

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리고 영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 착해있다. 그들은 두려움, 분노, 중독, 근심, 걱정, 상실감, 우울 증, 자살충동, 영적전쟁, 무기 력,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린다. 게다가 교도소에 감금되어 기 본적인 자유와 자존감까지도 잃어버린 채 소망의 부재를 경 험하고 있다.

나는 교도관들이 싸우며 폭 력을 쓰는 재소자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복도에서 뛰어가 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어떤 재 소자들은 자신 안에 분노와 증오 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 른다. 많은 재소자들이 이러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며 자신

치게 된다. 반대로, 한 재소자 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그 의 주위 재소자들에게도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 기 때문에 재소자들에게는 치 유에 관련된 책들이 반드시 필 요하다.

많은 재소자들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평안이 절실히 게 필요하다. 더불어 그들은 자 신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TPPM에 주시는 다 음단계의 사역방향이다. 치유

을 상담할 때 기도와 성경 말씀 을 통해 치유가 일어남을 알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살 을 시도하려는 재소자들의 감 방 문에 기도문을 붙여놓는다. 기도문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 하므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성장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 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동안 재 소자들을 상담한 경험을 통해 그들을 도울 책을 쓸 수가 있 다. 가장 최근에 쓴 책으로는 “ 내적치유 가이드”가 있다. 이 책에는 재소자들이 경험하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함을 배워야 치유경험 재소자들은 영적성장으로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돼야

의 인생을 파괴한다. 문제를 일 으키며 위기를 만드는 사람들 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만 일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겪 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도움 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

를 경험한 재소자들은 영적으 로 성장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찾 아오는 시련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이다.

나는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지를 배웠기 때문에 재소자들

다양한 상황에 따른 기도프로 젝트가 많이 실려 있다. 더불어 이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 로 잘 도울 수 있는 지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 더들이 모임을 인도할 때 사용 하기에 유익하다.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9강 / 아브라함(3-2)(창세기 18-25장)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의 약속을 반복해서 주셨습니 다(창15:4,17:16,19,21, 18:10).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 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십니다(창21:1,2). 임태가 불가능한 여 인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창17:19) ‘이삭’이 되고 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창21:4).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시132:11/단 6:26/말3:6/약1:17) 그 말씀하 신 바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 어난 이스마엘로 문제가 생기 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하 나님의 뜻 안에서 돌보십니다(창16:7-15, 21:13-21). 구속의 역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 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까지 붙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이후 아브라함은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 골을 만납니다. 그들은 아브라 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창21:22). 그들은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 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 다. 세상의 힘과 부를 가진 왕 과 군대 장관의 눈에 비친 아브 라함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 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공 로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 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온 여 정(롬4:1-13)이 하나님의 열심

에 기인한 것임을 깨달으며 더 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았 을 때가 그의 나이 몇살이였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를 두고 떠날 때의 나이가 75 세였고(창12:4)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창 21:5). 그리고 지금 이삭과 함 께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 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메고 그 산을 올랐으니 대략 15년을 더하면 40여년의 시간을 아브 라함은 up and down하며 하 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

사이에 긴 시간 믿음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불가능한 상황에 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최고 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드리 라’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

데리고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쟁겨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 로 갑니다(창22:3). 미루지 않 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 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도



아브라함은 삶의 남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헌신..

행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하던 어리 석음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 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 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받을 준 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데려오 시기 위해 지난 40여년을 인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러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 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인 이삭을 데려가라는 것입니 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 한 아들이 아니고 단순히 사랑 하는 정도의 아들도 아닙니다. 독자, 그것도 자녀가 없던 사라

리아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 니다. 즉흥적으로 ‘육’하는 마 음으로 손을 들어 삶을 헌신하 는 결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입 술로만 남발했던 그런류의 고 백(사29:13)은 누구나 가능합 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 려면 3일길은 가야 합니다(창 22:4). 흥분된 마음도 가라앉고 충분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만한 시간들 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 브라함은 상황 때문에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던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셋째, 이삭을 ‘번제로 드리 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죽여 내장을 버리고 남은 부분 을 ‘태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아브라함을 향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아침 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룩 했던 아내 사라와 의논한 곳 이 없습니다. 아니 알리지도 않 았습니다. 사라가 알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 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 시하신 곳을 멀리서 바라보습 니다(창22:4). 그리고 종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 것을 지시 합니다(창22:5). 만일 종들이 함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고 그로인해 아브 라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핑 계할 수 있지만 지금의 아브라 함은 그 가능성조차 막아버립 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창 22:5).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 을 성경은 ‘부활신앙’이라 합니 다(히11:17-19).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터 번제에 쓸 나무들을 이삭 에게 지우고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창 22:6).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 이삭에게 ‘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한 것은 아브 라함이 아직 아들 이삭에게 하 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말하 지 않았음을 뜻하고, 이때 아브 라함의 믿음은 ‘내 언약은 사라 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 라’(창17:21) 하신 하나님의 언 약을 붙들 신앙인 것입니다. 하 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 여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 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 니다.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에 이른 아브라함은 망설 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제단 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이삭 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 고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 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를 급하게 반복하여 부르십니 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삭의 생명 이 아닌 아들,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 의 그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사 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릴 하

은혜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 을 반복하심인데 ‘그 대적’이 바로 사단이고 ‘네 씨’는 곧 아 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행3:25/ 딤후2:8). 또한 ‘네 씨로 말미암 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은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 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의 약속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성취될 ‘복음’, 그 ‘하나 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평생의 동 반자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고(창23:1) 사라의 매장 지를 헛 족속으로부터 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나 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며 자 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브라함도(창 25:7-9), 야곱도(창49:30, 50:13) 묻힐 것입니다.

안식의 삶

이제 아브라함은 남은 삶을 정리합니다. 삶의 남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어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 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헌신합 니다. 바로 이삭의 배우자를 가 나안 땅에서가 아닌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데려오도록 합니다(창 24:10).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 심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라반 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옵니 다(창24장).

그렇게 아들 이삭을 결혼시 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어질 후손의 계보를 이은 아브 라함은 나이 175세에 죽습니다 (창25:7). 하란을 떠난 후 100 년이 지나서입니다. 셋의 자손 들과 같이 셋의 자손들과 같이 세상에서의 화려함보다는 하나 님의 언약 성취자로 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창22:12) 하나님의 열심에 의 해 살다가 그가 왔던 본향으로 열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 다(창 25:8).

믿음의 출발을 삶에서 드러 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 손들을 통해서 드러낼 하나 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계 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나님의 마음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중재 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살고 하심으로 이삭의 번제를 드 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 는 줄 안다’(창22:12)는 하나님 의 인정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솜양을 이삭 대신으로 하 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 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 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 였음이니라”(창22:17,18).

먼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 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은 첫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천당의 모습 IV(계 22:1-5)찬49장

신천신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 안의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할까?
첫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마십니다(1). 에덴의 네 강줄기의 실체를 통해 그 백성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오직 예수그리스도 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는 그 백성을 항상 새롭게 하는 생명의 원천을 보입니다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른 면을 보입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것은 구속이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주와 밤이 없고 항상 영화로운 빛 안에 삽니다(3).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새 창조적 활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화 재림을 맞을 준비자(계22:6-9)찬408장

계시록 첫 부분에 나온 재림 예언이 또 나타난 본문은 누구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 나라 왕의 재림을 아는 자가 복됩니다(6).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을 마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재림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예언을 이해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

가 복됩니다(7). 도적같이 홀연히 오는 재림의 예고를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날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자신을 살피며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셋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복됩니다(8-9). 요한은 너무 감격하여 천사에게 경배하려할 때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참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 그대로 행하라(계22:10-11)찬513장

구속사의 완성인 재림을 앞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째,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10). 구속의 일곱 인봉이 모두 열리는 날은 긴박한 때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증거 하듯, 재림이 앞의 두 사건의 효능을 증거 합니다. 둘째, 불의한 자의 심판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긴박한 때에 악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기 쉽

습니다. 그 때 진정한 심판자인 주께 돌려야 합니다.
셋째, 거룩한 자는 있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허세와 교만에서 벗어나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갑시다(빌4:11-12).

목 재림의 주를 기다리라(계22:12-15)찬161장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12). 성령을 위하여 심은 모든 것은 상급 곧 영생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마치십니다. 창세 이래로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 성취하신 구원을 재림으로 완성하시고 신천지로 완성된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돌로 나누십니다(14-15). 택한 자는 구원을 받아 그 성에 들어가거나, 불택자는 정죄를 받아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그의 피로 씻을 받은 자와 거짓교혼에 빠져 불의한 자들은 결코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으로 이 특권을 주신 재림의 주를 사모합니다.

금 상징주의들의 완성(계22:16-17)찬162장

신구약 성경에 여러 상징과 여러 모형으로 보인 것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는 다윗의 뿌리이십니다(16).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 하셨습니다.
둘째,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16). 언제 어디

서나 언약 백성의 목표이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 들어났습니다(요14:6).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됩니다.
셋째, 그는 생명수이십니다. 구속을 마치시는 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영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17). 구원의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즐겨워합니다.

토 성경의 절대권위(계22:18-19)찬164장

요한은 구속 완성을 예언하는 계시(성경)의 신적권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계시의 가르침을 가감하는 자는 세 가지 징벌을 경고합니다.
첫째, 성경의 재앙을 더한다고 하십니다(18). 성경에 덧붙이는 일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영생

을 얻지 못하니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계시를 근거한 자의 믿음만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 권위를 깨뜨린 신앙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신적권위를 주장합니다. 성경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1)

황금 같은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35년 정도가 지나 다니엘 4장에서는 이제 50대 중년이 된 그를 발견한다. 이때는 대략 기원전 570년 정도에 일로써 느브갓네살 왕 통치(694-562 BC) 마지막 시기에 해당된다. 이방 땅에서 살아온 날이 조국에서 살아온 날보다 많은 이 시점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큰 성공을 거두어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이때 그의 인생의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공동의 선을 추구함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마디로 그는 탁월하여 바벨론에서 그는 초특급으로 승진(그는 이미 박수장, the chief of the magicians이 되었음을 상기해보라, 단4:9) 하였고 바벨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가 감히 느브갓네살왕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보라(단4:26-27). 즉 견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왕을 가르친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황금의 시기, 중년기에 고민해야 할 인생의 과제는 나의 축적된 지식과 자신을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이다. 바로 다니엘 4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할 주제인데 여기에는 2가지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바로 다니엘의 태도와 느브갓네살 왕의 태도이다.

느브갓네살은 바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권력 추구, 이기적 욕심에 매

중년은 접속적 신앙, 공동의 선 추구로 자기 집단에 헌신 생산성 있는 중년, 자녀에게 거룩의 위대한 유산 물려줘야

중년의 기독교인들이 자녀야 할 가치와 자세를 배우게 된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다. 발달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성 (generativity vs. stagnation)의 싸움이라고 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황금 같은 중년기에 자신을 위해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지식, 귀한 경험을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할 것인가의 싸움이다. 바로 후자의 자세를 생산성이라 한다.

물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결국 그는 가진 것 같으나 다 잃어버리고, 성취한 것 같으나 모래알 같이 흩어져 버린 전형적인 것체에 빠진 사람이었다. 다니엘 4:4를 보자.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는 자신의 안락과 부유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 다니엘 4:30에 이렇게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춘다. 결국 이는 교만이다. 예나 지금이나 교만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최대한 걸림돌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능력을 총 동원하여 연륜의 지혜를 창출함으로 차세대를 위해 귀한 자산을 물려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지속함으로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겨 놓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곧 자신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영성의 발달 단계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자.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예전처럼 충만하였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고(단4:8, 18),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단4:9,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영성의 발달을 연구한 James Fowler는 중년의 신앙단계를 접속적 신앙(conjunctive faith)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목표가 자신의 삶 속에 투영됨을 알았고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팬데믹 시대 엄마와 자녀, 신앙을 말한다!

RNS, "31%가 열린 마음으로 종교문제 대화" 설문 결과 보도

밀레니얼 세대의 모성에 초점을 맞춘 웹 사이트(Motherly)의 연례 "모성상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어머니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종교는 중요한 주제였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31%가 작년에 자녀와 종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로 성 평등(33%)과 인종차별(46%)에 이어 뒤따랐다(Survey: Religion a key topic for many millennial moms during pandemic: Nearly a third of mothers discussed faith or spirituality last year, a new survey found).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발견이 있었다.

거의 모든 어머니(93%)가 자녀를 돌보는 데 지쳤다고 답했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급 가족 휴가(73%)를 진정으로 소원하

11,000명의 여성 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3월에 Gallup 여론조사는 미국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던졌다. 갤럽은 이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8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의 50%미만이 예배당에 속해 있음을 발견했다.

결론으로, 25-40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번 결과는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나 다른 신앙공동체를 나갈 수 없었던 밀레니얼 세대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데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적극적이다.

해당 사이트의 공동 설립자(Liz Tenety)는 "가족마다 다른 종교적 신념과 이러한 개념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 어머니의 약 23%는 '가치, 종교 또는 영성'을 자녀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공간 즉 집안에서 자녀들과 지내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가족과 직업의 균형(49%)과 삶의 단계(43%)였다.

"밀레니얼들은 부부간에 다양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기록적인 수의 종교 간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공유되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표현되는 세상에서 부모는 자신의 고유한 신념과 관습을 자녀와 공유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라고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는 이 문제가 어머니들에게 광범위한 관심사임을 시사한다.

테네티는 신앙에 대한 가족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그러한 관행과 의식을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종교적인 큰

밀레니얼세대, 다른 세대보다 신앙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적극적

테네티는 분석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의 12%가 이슬람 혐오증이나 반유대주의 또는 돌다를 자녀와 논의했다고 답했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 비율은 미국의 무슬림과 유대인 인구를

대화가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질문에 답하거나 난해한 물음에 대해 솔직하게 모든 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신이 믿는 것과 그

질문을 함으로 자신의 신념을 자녀와 공유하거나 '답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진실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테네티는 엄마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염병

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시설이나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기를 바랐다(67%).

'모성상태' 설문조사는 이제 4년째다. 올해에는 사이트의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속하는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비뇨기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발병하는 전립선 질환은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

prostate specific antigen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립선암 환자들이

치료가 더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만 하고 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과는 관계가 없고 발생 시간에 따라서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으로 구

남성에게 많은 전립선 질환

우 흔하다. 전립선비대증의 경우는 유행중심의 식습관이 원인이고, 전립선암은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발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

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도록 도와준다.

전립선비대증도 나이가 비례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증상을 심해지는데 최근에는 약물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해서 수술적인 치료는 약물

분하고 항생제 치료를 일차적으로 하게 된다.

여성에게 흔한 비뇨기계 질환은 방광염이다. 방광염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지만 젊은 여성에게서도 흔히 발생한다. 방광염

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우신염이나 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광염을 유발하는 대장균(E.Coli)은 현재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항생제를 바꿔야 한다.

전립선 질환과 흔히 혼동하는 것이 과민성 방광질환(overactive bladder syndrome)이다. 이 질환은 여성이 아기를 분만할 때 괄약근이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성이 있고, 노화 현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이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주로 운동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쓰기도 하지만 효과가 적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남성에게 전립선 질환과 과민성 방광질환이 함께 올 때도 있는데 이때는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한다.

▲문의:213-383-9388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자신의 지혜와 총명은 곧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과감하게 느꼈듯 네살왕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쳤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기독교 역사상 찬란하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였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청년기에도 역시 God First의 삶을 증거한 사람이었고 중년기에도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과감히 드렸던 사람이었으며 노년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마친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였던 청년의 시절에 그 자신의 욕구와 세상의 출세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아니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도를 그는 믿고 꾸준히 이를 가르치고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죽은 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가 기록한 성경구절을 통해 인간 문명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필자는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 다니엘, 참 아름다운 사람!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중년들에게 질문을 해본다. 무엇으로 인생의 중년을 채울 것인가? 옛날 학교에서 잘못 배운 부분 하나가 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때 필자의 중학교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어록이라 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하였고 중요한 말씀이라 하시면서 외우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틀렸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모의 위대한 유산은 거룩이다. 지금 삶의 황금기인 중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생의 황금시기에 무슨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요일5:2).

hlee0414@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영길 클라출판사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텝톤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창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왈스 생명의 말씀사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 두란노
--------------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